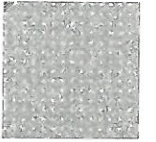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페이지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추상 | 이남규 루카, 지름 80cm, 레드케임 기법, 1985년, 성심여고 성당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신명 30,1-5

화답송 | 예레 31,10.11-12ㄱ.13ㄷ-14(◎ 10ㄷ 참조)

◎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
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아굽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
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
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2독서 | 에페 4,29-5,2

복음환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
리라. ◎

복음 | 마태 18,19ㄴ-22

영성체송 | 콜로 3,14 참조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열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하나같이 모두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똑같은 강도로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녀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둘 이상의 자녀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잘나가는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이겠습니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은 늘 부족한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국력으로 세계 6위이고,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5살 미만 영아 사망률은 인구 천 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5,100만 명으로 세계 28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인 북한은 종합적인 국력은 측정 불가이고,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열 살 적은 73세이며, 5살 미만 영아 사망률은 인구 천 명당 15명으로 전 세계 최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세계 56위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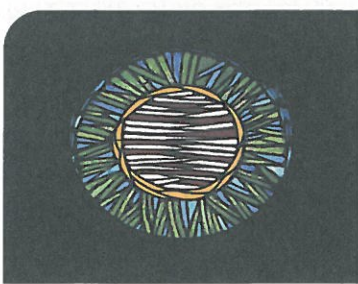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두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더 마음에 쓰이시겠습니까?

또, 같은 형제인데도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너무 기울게 살아가는데, 나는 불편함이 없다고 형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를 기억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 생각을 하자고 하면 일각에서는 사상이 달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멀어서 굳이 도와주어야 하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복음삼덕 중 최고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역사, 같은 조상,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친형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것 아니냐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어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하는 마음은 정치, 경제, 사회를 떠나 보편적인 형제애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효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

용서와 참회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다른 이에게 재생과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함을 깊이 되새깁니다. 스테인드글라스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존중하는 태도와 참회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걸으며 평화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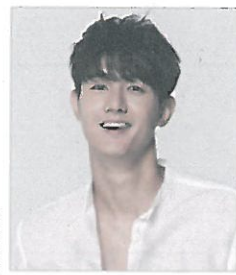
박정석 마카엘 | 루크글라스



아버지와 성가 그리고 모두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나 주님 곁에 계신 지금이나 한결같이 입을 모아 “기적을 달고 다니셨던 분이시.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신앙이 대단하셨지.”라고 합니다. 4주간 주보에 글을 게재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차례가 될 오늘은 저에게 신앙과 은총을 일상 속에서 느끼게 해주신 아버지께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썸하기도 싫은 크고 작은 수술을 반복하며 수많은 약들을 아주 오랜 시간 달고 지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거듭하고 약의 종류가 늘어갈 때마다 몸은 약해지셨어도 신앙만큼은 더 굳건해지심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걸음이 불편하신 중에도 긴 계단을 올라 성당 2층 성가대로 향하시는 표정에는 늘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성가 소리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번에 찾아낼 정도로 평소보다 더 힘 있고 고우셨거든요. 매일 밤 홀로 켜진 주방 등 아래는 어김없이 성경 말씀을 읊기시던 아버지가 계셨고 노트엔 둔해진 손으로 쓴 변함없이 또렷하고 따뜻한 주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계셨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통해 느껴지는 주님은 분명히 저희 가족 안에 머무르신다고 믿었습니다. 2017년 아버지께서 길고 긴 투병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로 가실 때, 슬픔에 빠진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떠나시기 며칠 전부터 성가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하시



이기우 요셉 | 배우



거나 약 기운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각종 기계음과 알람으로 어수선하고 건조한 병실 안에서 아버지는 풍성하게 울리는 주님의 성가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가 소리가 참 좋게 들린다면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죽음을 앞둔 아버지께서 이토록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분명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성가 속에서 하느님께로 가셨고 지금도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 슬픔 속에서 아픔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치유되고 커다란 위로의 은총을 받은 것 아닐까요? 언제고 또 다른 슬픔을 마주할 때가 오더라도 그 슬픔을 외면하기보다 어김없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사회교리'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83항에서 사회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1):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부활을 믿으시나요?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고 하면, 어떤 답들이 나올까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니 못하실 일이 없지!’, ‘성경에 나오니 믿지.’, 혹은 ‘믿고 싶어요.’라는 응답도 있겠네요. 또 ‘부활이 있든 없든 뭐 그리 중요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어나?’ 하실 수도 있고, ‘임사체험’ 같은 걸로 이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에 찬 보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다.(마태 28,11-15 참조) 그러나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너무나 확실하고 생생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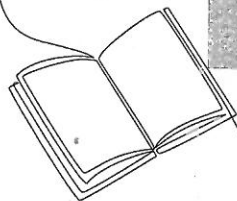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확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체험 이후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리스도 이심을 알아듣게 되지요.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구원하는 메시아, 그렇다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같은 분,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제자들은 어떤 어려

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투신하게 한 걸까요? ‘부활하셨다.’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일으켜졌다’(마르 16,6; 루카 24,34; 요한 21,14 참조)입니다. 즉 ‘하느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는 것인데,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으키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생명의 주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중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1사무 2,6)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의 업적임을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사도 3,15)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삶과 죽음 모두를 관장하시는 분, 따라서 ‘모든 것이 끝장난 거기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끝나버렸어.’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희망을 넘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합니다.(로마 4,18)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울의 회심 -변화된 바오로 (갈라1,11-24)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인간은 누구나 확증 편향적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도록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이란 힘든 일이며, 더욱이 자신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오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삼 년 뒤에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갈라 1,16-17) 바오로에게 이 기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숙고의 기간이면서도 하느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큰 은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회심 전 바오로에게 율법은 구원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실성이 바로 구원을 보장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방식은 '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자력 구원의 백일몽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심한 바오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로마 5,11) 이제 바오로에게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박해하고 거부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전환을 바오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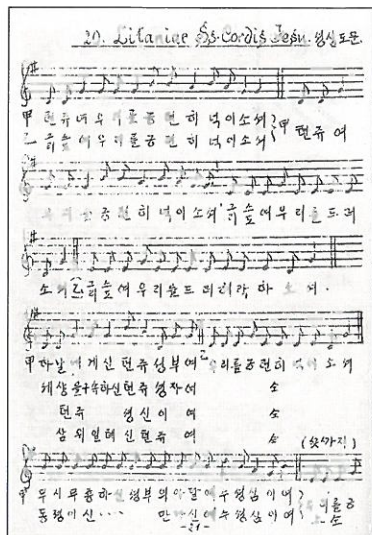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필리 3,8)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는 수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필리 3,10) 그래서 바오로는 힘들고 고된 선교 여행을 세 차례나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옥살이도 하고, 마흔에서 하나를 뺀 때를 유대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는데, 채찍으로는 세 번, 돌질로는 한 번을 맞으며, 파선은 세 번이나 당합니다. 그 외에도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햇볕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2코린 11,23-27) 그렇지만 바오로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시각도 자기 중심인 업적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인 사랑의 구원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인 사랑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로마 8,35)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기도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호칭기도’

(Litaniae Sacratissimi Cordis Jesu)



〈악보〉 '조선어 성가'(덕원, 1928년)에 실린 '성심도문'의 앞부분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음악과 교수·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감독

리타니아(Litaniae)는 라틴어 단어 litania(기도, 탄원)의 복수형으로 일반적으로 '호칭기도'(禱文)라고 합니다. 선창자의 연속적인 청원이나 부름에 공동체가 같은 내용으로 응답하는 기도 형태입니다. 이 기도의 기본적 형태는 시편 136편에 기원합니다.

“

주님을 찬송하여라, 종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신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홀로 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슬기로 하늘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안티오키아에서 기원한 리타니아는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로마까지 전파되었는데, 약 5세기에는 '공적 행렬 기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순 시기에 교황님과 신자들이 행렬을 하면서 다양한 회를 방문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이것이 교황 순회 미사(Station Mass)로 발전합니다. 이런 공적 행렬에 바치는 리타니아를 통해 하느님의 분노가 진정되기를 간청하고 재앙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미사 전례에서 '자비송'과 '하느님의 어린양'이 리타니아 형식 기도입니다. '자비송'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Kyrie, eleison) 혹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Christe, eleison)라는 선창자의 기도에 신자들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응답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어린양'에서 "하느님의 어린양 (Agnus Dei),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여."하고 부르면, 신자들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공식적인 호칭기도를 6개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이름 호칭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호칭기도, 지극히 귀하신 예수 성혈 호칭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 호칭기도, 성 요셉 호칭기도 그리고 모든 성인 호칭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호칭기도(Litaniae Beatae Mariae Virginis)를 이탈리아의 성모 성지 로레토(Loreto)의 라틴어 명칭을 사용하여 '리타니아 라우레타나'(Litaniae Lauretanae)라고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호칭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에서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를 각각 2번씩 노래한 후, "Christe audi nos"(그리스도님, 저희 기도를 들으소서), "Christe exaudi nos"(그리스도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역시 2번씩 노래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예수 성심의 다양한 속성을 열거하며 그분의 성심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청합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한 후 기도(Oremus)로 마무리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호칭기도
 요제프 가자르 신부님 지휘
 프랑스 슬렘수도원 합창단

나를 위해 식별하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식별하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의식 성찰 안에서 알아차린다면, 이제는 나의 구체적인 삶을 하느님과 함께 식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식별 역시 교회의 오랜 영적 유산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식별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로마 12,2 참조) 특히 사막의 은수자들에게서 비롯된 식별에 대한 가르침은 이후 여러 신학자와 영성가의 이론과 실천을 보태 이나시오 성인에 이르러 집대성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별' 또는 '영적 식별'이라는 주제가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철저한 대침묵 피정에서나 할 수 있는 것, 뭔가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일이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별은 대침묵 피정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식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별의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별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찾으려는 걸까요?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 혹은 친구여도 괜찮습

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에 살면 좋겠는지 하는 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무얼 하면 좋겠는지, 어디를 가면 좋겠는지, 식사로 무엇을 먹고, 또 치는 어떤 걸 마시면 좋겠는지 하는 사소한 것까지도요.

어떠세요? 모든 답을 떠올리셨나요? 한두 가지 단편적인 물음에 떠오르는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답을 찾을 순 없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통제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떤 답이 좋을까요?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하시죠. 하느님은 우리 각자가 더 참되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결국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별의 목적입니다. 나를 위한 식별이지요.

식별하는 이유, 목적을 제대로 알아들을수록 식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신명 10,13)

오늘(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단식하고, 이 단식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을 2차 헌금으로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 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 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영명 축일

6월 29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맑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열등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교구청 알림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만 20세 이상, 고졸이상 가톨릭 신자
교육기간: 9월~2024년 6월 / 모집기간: 6월19일~7월31일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cpc@seoul.catholic.kr)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순교자현양위원회)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6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7월5일(수) 오전 9시부터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우포도청터 출발-오후 1시30분 절두산순교성지 도착
7월26일(수) 오후 7시부터	저녁애 순례길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종림동 약현성당-서울로7017-명동성당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7월6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때, 곳: 7월27일(목) 오후 3시, 명동대성당
주제: 이기현 주교(민족화해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주교단 / 문의: 010-8709-2346
공동주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제45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때: 6월28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제: <토마스 베리 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강사: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송영민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 회비 없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향심기도 율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7월2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7월3일(월) 13시30분~16시30분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심정에 개인전: 1전시실
한국 레지오 마리에 도입 70주년 기념전시회: 2, 3전시실
전시일정: 6월28일(수)~7월6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6월29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사회적 약자와 파괴된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책무입니다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환경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283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74차 미사 6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중강진 분당, 함흥교구 영흥 분당 / 문의: 02)727-2420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벽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6월3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7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7월21일(금)~23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 문의: 010-9074-6527
 강의-미사: 이해동 신부(살레시오 수도회)
 때, 곳: 7월3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말씀여행 피정(도미니코수도회)
 강사: 안소근 수녀(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내용: 대침묵, 성서묵상, 면담성사
 때: 7월14일 19시~16일 / 문의: 010-2034-0042
 곳: 토마스영성센터(강북구 수유동) / 회비: 18만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중고등부	8월7일(월)~9일(수), 산청 성심원(경남)
일반부	8월11일(금)~13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완독	7월7일(금)~15일(토), 8월11일(금)~19일(토)
효소단식	7월20일(목)~23일(일), 8월3일(목)~6일(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 I	7월28일(금)~30일(일)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내용: 오후 2시 로사리오 기도, 오후 3시 미사 봉헌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편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7월13일(목)	서소문 밖 네편리 순교성지	집잔 구부벼주교
8월13일(일)	서소문 밖 네편리 순교성지	집잔 정순택대주교
9월13일(수)	절두산 순교성지	집잔 두봉주교
10월13일(목)	서소문 밖 네편리 순교성지	집잔 염수정추기경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상반기 HOT 피정
 주제: 주님 안에 심 / 출발: 전철 1-4호선 서울역
 때, 곳: 7월1일(토) 14시~2일(일) 14시(1박2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회(대구) / 대상: 청년 25명
 회비: 6만원(식사비 포함, 교통비 개인 부담)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입금 후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7월22일~24일·7월28일~30일·8월1일~3일·8
 월19일~21일·8월27일~29일·9월1일~3일·9월5
 일~7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8월5일~8일·8월11
 일~14일, 추라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
 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7월21일~23일, 8월26일~28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라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 월15일~18일, 11월4일~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7월14일(금)~16일(일)	정남진 신부(원주교구)
8월18일(금)~20일(일)	민범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7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7월1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임문철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7월5일(수) 12시30분~17시 강사: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7월15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오세민 신부, 이현주 회장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성경학교	(화) 13시~15시30분	미사 없음

7월 '심'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때, 곳: 7월7일 20시~9일 10시,
 선교영성센터 / 회비: 4만원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 찬양 1일 피정
 때, 곳: 6월29일(목) 10시~16시, 삼동역 본회
 미사집전: 김경희 신부 / 회비: 3만원(중식 제공)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
 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때: 순례 9월9일~11일(왜관·대구 17곳), 10월7일
 ~11일(울릉도·독도·왜관), 수도원 외 7월22일~24
 일(춘천 15곳), 10월21일~23일(안동·원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때, 곳: 매일 둘째주(토) 7월8일 14시~18시,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신
 앙선조는 '영혼이 힘들'을 어떻게 든든히 하였는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성가, 가곡 / 초보자 환영
 강사: 강신옥 / 문의: 010-2252-2974 국악성가연구소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
 선교회부설(주최) / 02)941-1880(learning4@daum.net)
 오전반 7월5일(수) 11시 저녁반 7월4일(화) 19시30분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4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6월25일~7월6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개강: 7월4일(화) 기초·초급반, 7월6일(목) 중·고급반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예수회센터 사전녹화 강좌
 7월 개강, 각 6주 수강 /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	김정택 신부
육양,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
육화의 영성	손우배 신부
신약성경과 영성생활- 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임숙희 박사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luke153연구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02)324-0852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3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 김영훈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때, 곳: 7월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세미나 / 문의: 02)874-6346
때: 7월1일(토)~8월26일(토) 13시~17시(7주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상주기도원 / 회비: 2만원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강좌
7월~8월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7월3일~5일(강좌별로 상이함) / 회비: 32만원
주2회 2시간씩 총 30시간, 8주 과정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문의: 02)705-8718(http://sceec.sogang.ac.kr)

모집

시스피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28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6월29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6월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6월30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7월1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 문의: 02)828-3522
때: 6월26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끈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7월1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6월30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웅기장학회 월레미사
때, 곳: 6월2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형균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이경상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연합회 6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소장)
때, 곳: 6월27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
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중림동약현성당 2024년 1~3월 혼인예식 추천
때: 7월2일(일) 15시 /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주의사항-2024년 4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천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
문 성당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7월15일·8월19일·9월16일 16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창5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990-5684
분야: 사무원(계약직) 1명 / 7월2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france@seoul.catholic.kr) 접수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PC(한글·엑셀) 숙련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문정2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1명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사무행정, 회계,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 문의: 02)408-0179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이메일(rgkim@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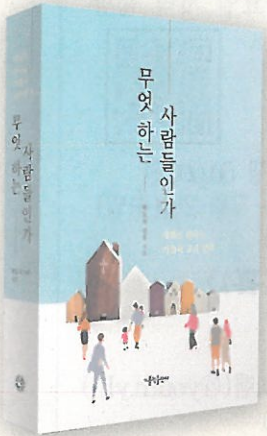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월2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휴가철 추천 도서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 40,8)

이달의 추천 저자



예비 신자, 새 신자라면 꼭 만나 봐야 할 스테디셀러 작가

박도식 신부의 대표작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당을 찾아온 비신자
송 군과 그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는 박 신부의 대화
예비 신자 및 새 신자들에게 적극 추천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신부 지음 | 20,000원

박도식 도미니코 신부
(1935~2003년)

가톨릭 교리와 신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0여 권의 책을 집필



가톨릭북 YOUTUBE 채널
'10분 북리뷰 박도식 신부'편



휴가철 추천 도서



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지음 | 1만3천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작은 심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는 시간

휴가철 추천 도서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페터 아벨 지음 | 1만3천원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방법

마음이 지친 당신에게는
영혼의 심이 필요합니다!

휴가철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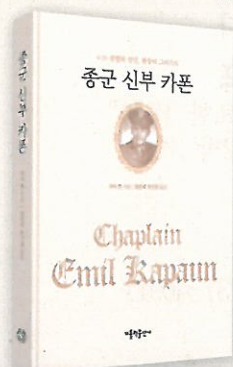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린 지음 | 1만3천원

피로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피로를 느낀다면
삶의 방향을 돌아볼 때입니다

휴가철 추천 도서



종군 신부 카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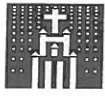
아더 톤 지음 | 1만8천원

태극무공훈장 수상한
6·25 전쟁의 성인

한국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하느님의 종 에밀 카폰 신부



제228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언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박병훈 예로니모(예수회) 사제 서품 및 첫미사

서품식 : 6월 28일(수) 오후 2시 / 명동성당
 첫미사 : 7월 2일(주일) 11시 미사 / 연회동성당
 ※ 첫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5월~6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윤주	율리안나	1-3	이유훈	라파엘	3-1
장보배	세라피나	6-5	황현호	사도요한	8-2
조운래	테레사	9-4	박세향	마리아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병자영성체

일시 : 6월 30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일시 : 7월 1일(토) 오전 10시 미사

◎ 유아세례 : 7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여성 울드레아

일시 : 6월 27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304호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15일(토)~16일(주일)

장소 : 여주관광농원

문의 : 지파 교감 (010-8081-9812)

※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일시 : 8월 11일(금)~13일(주일) 2박 3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유치부 ~ 6학년

회비 : 인당 5만원

문의 : 이경화 교사 교감 (010-2737-4091)

◎ 청년 여름캠프 (얼리버드 할인 안내)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접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얼리버드 접수시 60,000원 / 학부생 50,000원

얼리버드 접수기간 : 6월 18일(주일) ~ 7월 2일(주일)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회동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6. 1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5	770 (37.3%)	731 (35.4%)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정임 마리아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6월 12일~18일)

이성애삼십만원 박명숙오만원

익명일십삼만원 익명일십만원

강신오만원 여재원오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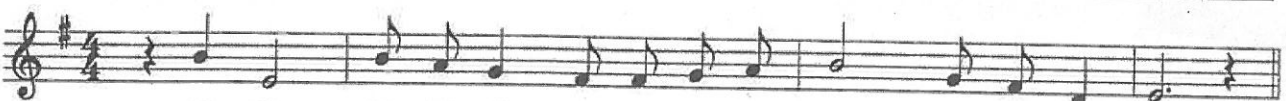
함영동일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1주일)

교무금7,754,000원

주일헌금5,788,000원

입당	70	봉헌	213, 221, 218	성체	155, 18, 175	파견	48
----	----	----	---------------	----	--------------	----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